



1948년 봄날에 교회 성도들이 주변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 온갖 초가지붕의 집들이 보이고, 해방직후 어려운 살림가운데 마을 주민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애쓰신 신앙의 선배들이다.



제6대 담임목사로 부임하신 황성주 목사님은 1971년 제1차 교회부흥 5개년 계획으로 매년 심령대부흥회를 개최하여 성도들의 신앙은 더욱 뜨거워졌다. 앞줄에故고종순 권사님,故강귀금 권사님 등이 보이고, 오른쪽 최순임 권사님(미국거주), 왼쪽에故이영호 장로님, 이연택 장로님 등의 모습이 보인다.



1972년 가을 어느 날, 성전 공사가 한창인데, 성도님들의 자발적인 모습으로 일손을 돕고 있다. 집안 일로 고된 가운데서, 툼툼히 성전 주변에서 성전이 세워지는 모습을 보며, 벽돌과 연장을 옮기며 행복한 모습이다.



1975년 6월 8일 헌아식을 거행하였다. 교회와 나라의 기둥이 될 자녀들에게 신앙의 전통이 흘러 내리는 아름다운 모습이다. 맨 앞줄에 최경희 권사님, 가운데 박다연 권사님, 뒷줄에 정인성 장로님, 故 최경태 장로님 등 많은 낮익은 분들의 모습이 보인다.



제2차 교회부흥 5개년 계획 기간 중 연초에 직원들의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를 드렸다.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직원들의 믿음직한 모습이 인상적이며, 10년 후에 교회의 장로님과 권사님으로 기둥역할을 하신 낮익은 얼굴들이 보인다.



1988년 6월 날씨도 청명한 봄의 끝자락에 남전도회에서 가족이 함께 야외에서 단란한 시간을 가졌다. 신앙으로 키운 자녀들이 이제는 어엿하게 성장하고 송현교회의 역사를 이어가는 인물들이 되었다. 7남전도회에 훌륭한 교회의 인재들이 단합된 모습으로 송현교회를 섬기니 감사한 일이다.



본격적으로 체계적인 성경공부를 수 개월에 걸쳐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영광의 수료를 하신 분들이다.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시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쌓여가며, 교회 내에 성경공부의 불을 일으킨 장본인들이다.



1997년 4월 13일, 우리 교회는 황영대목사님을 모시고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미주송현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당시 담임이셨던 장자천목사님과 김영오장로님 정인성장로님 손진표장로님을 비롯한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방문하였고, 요세미티 공원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놀라운 광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는 모토로 수년에 걸쳐 아버지 학교를 개설하고 많은 수료자들을 양성하였다. 어머니 학교와 더불어 아버지 학교는 교회와 가정을 세워나가는 중요한 신앙적 자산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



2007년, 든든한 기도의 후원자 0시 기도팀 야유회를 가졌다. 거의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같은 자리에서 기도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의 헌신으로 교회가 든든하게 성장했다.



2010년 8월, 3박4일간 충남 일대에서 국내 선교 아웃리치를 가졌다. 작은 교회를 방문하여 사역자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님들을 섬기며,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2년 11월, 세계살림선교회 주관으로 용인에 소재한 한국기독교 순교자기념관을 방문하였다. 참가한 분들이 순교자의 행적을 따라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자 다짐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사진 속의 얼굴들은 송현교회에서 많은 봉사 와 헌신을 하시는 분들이다.



매년 11월은 교회 김장을 하는 행사를 가졌다. 겨우내 먹을 김치를 담그기 위해 힘쓰는 남자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윤영수 목사님(의 손길이 능숙해 보이는 걸 보니 여러 번 해 보신 것 같다. 코로나이전에 교회 식당에서 시골벽적국수나 국밥에 김치를 먹던 시절이 그렇다.



2014년 11월 20일 추수감사절 기념 가족경창대회에서 주일학교 어린이가 아닌 어린이를 자녀를 둔 리브가 목장이 "구원 열차" 찬양에 맞춰 안무를 하고 있다. 우승보다는 인기상을 목표로 하고 나왔고, 희망한 대로 인기상을 수상하여, 많은 성도들에게 즐거움을 준 행사였다.



2019년 6월 송림체육관에서 전교인 한마음 체육대회를 거행했다. 영유아부 어린이부터 시니어부 권사님들까지 각종 게임과 행사를 하다가 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준비하느라 수고한 스텝들이 많은 고생을 한 덕분에 참가하는 성도님들의 얼굴을 웃음이 한가득이었다.



2017년 6월 24일(토)에 비전센터 사랑홀에서 새가족 환영의 밤을 진행하였다. 상반기에 송현교회에 등록하시고 새가족 교육과 더불어 예배를 드려오신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 새가족부에서는 항상 새가족 분들이 교회에 정착과 신앙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중요한 부서이다.



2018년 11월 3일 총남성목장(회장 김영삼 집사)이 주관하여 남성, 여성목장 야유회를 충주 종대이길로 다녀왔다. 걷기 불편하신 성도님들은 유람선 관광코스를 제공하였고, 트래킹 코스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종대이길을 걸으며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였다.



2019년 5월 9일 시너지구 성도님들을 모시고 호도여행을 다녀왔다. 예산 예당저수지 일대를 돌아보며 몸과 마음에 새로운 기운을 넣는 행복한 시간이었다. 송현교회의 주춧돌되시는 어르신들이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시길 기도한다.



2010년 8월 초, 직장에서 얻은 여름 휴가 기간에 송현교회 성도님들과 청년들까지도 충남 지역 작은 교회를 섬기는 일에 헌신하였다. 가진 달란트와 단결된 힘으로 미용봉사, 도배, 영정사진 찍기, 도로 및 교회 보수 공사, 전기 배선 공사 등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나눠주는 귀한 시간이었다.

매년 가을에 개최된 서지방 체육대회에서 송현교회는 많은 수의 선수들이 있음에도 우승을 한 적이 별로 없었지만, 우승을 하고자 뭉치니 언제나 우승을 하게 되었다. 승부를 떠나 성도가 교제하고, 교회가 연합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